

질문 6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또한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학교 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 공경하는 마음이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옛날의 전통을 살리고 학교교육, 가정교육이 바로 서야합니다. 어른이나 이웃,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빨리 익힐 것입니다. 강력한 규율이나 제재 보다 교육방향이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고,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학벌중시 풍토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중시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인교육 위주로 정책

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에게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대책이 있겠지만 학교만 대처하기 보다는 가정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 학교폭력은 윗 세대 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력조직과 연계된 부분부터 발본색원하여 초등학교에 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결혼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7 남편과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지 소개하여 주십시오.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 22살 때, 친척 소개로 만나서 3주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눈에 콩깍지가 썩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3주만에 결혼한다고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과 크게 다투본 적도 없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 1976년 6월,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남편을 대학 4학년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6월에 만나 이듬해 1월에 결혼했으니 서로 호감이 많았던게 맞죠, 학생때라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을 처음 만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시 촌스럽지만 당당하

고 다부진 모습, 선한 눈빛을 보니 '이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 제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남편은 공병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도중 교실 밖을 보니 군인들이 학교 담장을 보수하고 있더군요. 일종의 대민봉사였는데, 물론 영화처럼 아주 낭만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 현 속초경찰서에 근무하는 남편의 친구로부터 대학 축제의 축제 파트너로 소개 받았고 8년간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심각·정책개선 필요 지적

눈에 콩깍지가 ... 이사람이라면

정문헌 친척소개로 ... 송훈석 사법연수생 때
손문영 공병장교 시절 ... 황정기 대학축제 때

질문 8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할 생각입니다. 예 또는 아니로 답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 아닙니다. 굳이 같은 사람과 또 만나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과 같은 긍정적인 사고와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 예, 남편과는 천생연분 같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지 35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에도 잘 챙겨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자상하고 이해심이 많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

'예'. 물론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일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마 제 남편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없을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 아니요, 저는 순탄하게 살아 왔지만 남편은 굴곡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보다는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배우자프로필 : 나이(만), 출신지, 학력, 경력, 자녀, 노래방 18번지, 존경하는 인물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 42세, 서울, 연세대 음악대학원 음악학 박사, 이화여대·연세대 강사, 3남, 바위섬, 달라이 라마(티벳 지도자)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 57세, 충청남도, 숙명여대 졸업, 1남 1녀, 개봉블레(신형원), 테레사 수녀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 58세, 전라북도 김제, 춘천교대 졸업, 전업주부, 1남 1녀, 소양강치녀, 어머니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 48세, 춘천시 우두동, 강원대 사범대학 졸업, 1녀1남, 만남(노사연), 이순신장군

“23~27일까지 부재자 신고하세요”

전국 부재자투표소에서 4월 5~6일 투표 가능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성욱)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면 자택 등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 하더라도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하여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공무원 선거관리요령 교육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고성군 자치행정과장과 5개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련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선거사무 협조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공무원 선거관련 행위 예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광연 기자